

## 1. 논쟁의 시작

「퇴계여고봉서」(退溪與高峯書; 줄임)<sup>1)</sup>

또 사단칠정에 대해 말씀하신 내용을 벗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 역시 표현이 적절치 않다 싶어 짚짚해 하고 있었는데, 선생의 비판을 받고 나니 제 생각이 영성하기 짝이 없다는 것을 더욱 더 분명히 알게 되어 곧바로 이렇게 고쳐 보았습니다. “사단이 드러나는(發) 것은 순전히 리(理)이기 때문에 선하지 않음이 없고 칠정이 드러나는 것은 기를 겸하기 때문에 선도 있고 악도 있다.” 이렇게 문구를 다듬으면 잘못이 없을 듯한데 어떨는지요? <기미년(1559, 명종14) 1월 5일>

又因士友間，傳聞所論四端七情之說。鄙意於此亦嘗自病其下語之未穩，逮得砭駁，益知踈繆，即改之云，“四端之發，純理，故無不善，七情之發，兼氣，故有善惡。”未知如此下語無病否。

## 2. 고봉1서

「사단칠정설」(四端七情說)

자사(子思)는 “기쁨과 성냄과 슬픔과 즐거움이 드러나지 않은 것을 알맞음이라 하고, 드러나서 모두 다 사회적 기준[節]에 들어맞는 것을 어울림이라 한다.”<sup>2)</sup>라고 했고, 맹자는 “측은한 마음은 인(仁)의 실마리고 부끄럽고 미워하는 마음은 의(義)의 실마리며 사양하는 마음은 예(禮)의 실마리고 옳은 것을 옳다 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 하는 마음은 지(智)의 실마리다.”<sup>3)</sup>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본성과 감정에 대한 설명으로 선배 학자들이 그 뜻을 충분히 드러내어 밝혔습니다.

子思曰，“喜怒哀樂之未發，謂之中；發而皆中節，謂之和。”孟子曰，“惻隱之心，仁之端也；羞惡之心，義之端也；辭讓之心，禮之端也；是非之心，智之端也。”此，性情之說也，而先儒發明盡矣。

하지만 제 생각에는 자사의 말은 사람의 감정 전체를 놓고 설명한 것이고 맹자의 말은 그 중에서 [좋은 것만] 추려낸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아직 드러나기 전을 본성이라 하고 이미 드러난 뒤를 감정이라 하는데, 본성은 선하지 않음이 없지만 감정에는 선

1) 위 편지는 사단칠정논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글이어서 『사칠이기왕복서』의 처음에 실려 있다. 그러나 이것이 두 사람 사이의 첫 편지는 아니다. 『양선생왕복서』에는 「明彥拜謝 奇先達前」이라는 제목의 편지가 처음에 실려 있는데 이것이 두 사람 사이에 오고간 첫 편지로, 기대승이 과거에 합격하고서 이황에게 인사를 다녀간 뒤 이황이 기대승에게 ‘고향으로 잘 내려가라’고 안부를 전하는 내용이다.

2) 『중용』 1장에 나온다.

3) 『맹자』 3-6에 “惻隱之心，仁之端也；羞惡之心，義之端也；辭讓之心，禮之端也；是非之心，智之端也。”가 나오고 11-6에 “惻隱之心，仁也；羞惡之心，義也；恭敬之心，禮也；是非之心，智也。”가 나온다.

과 악이 있는 것은 확고한 이치입니다. 자사와 맹자가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이 달랐기 때문에 사단과 칠정의 구별이 있게 되었을 뿐이지, 칠정 이외에 사단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然竊嘗攷之，子思之言，所謂道其全者；而孟子之論，所謂別撥出來者也。蓋人心未發，則謂之性；已發，則謂之情，而性則無不善，情則有善惡，此乃固然之理也。但子思孟子所就以言之者，不同。故有四端七情之別耳，非七情之外復有四端也。

이제 만약 “사단은 리에서 드러나서 선하지 않음이 없고 칠정은 기에서 드러나서 선과 악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는 리와 기가 갈라져서 두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또 칠정은 본성에서 나오지 않고 사단은 기를 타지 않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말의 뜻에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후배로서 저는 의심스럽게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사단이 드러나는(發) 것은 순전히 리(理)이기 때문에 선하지 않음이 없고 칠정이 드러나는 것은 기를 겸하기 때문에 선도 있고 악도 있다.”라고 고치신다면, 이전의 설명보다 약간 낮긴 합니다만, 제가 보기엔 여전히 옳지 않은 듯합니다.

今若以爲“四端發於理，而無不善；七情發於氣，而有善惡”，則是理與氣，判而爲兩物也，是七情不出於性，而四端不乘於氣也，此語意之不能無病，而後學之不能無疑也。若又以“四端之發，純理，故無不善；七情之發，兼氣，故有善惡者”而改之，則雖似稍勝於前說，而愚意亦恐未安。

본성이 막 드러나고 기는 작용하지 않아서 본성 본래의 선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이, 바로 맹자가 말한 사단이란 것입니다. 이것은 실로 순전히 천리(天理)가 드러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칠정 밖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칠정 중에 드러나서 사회적 기준에 들어맞는 것의 짝이며 줄기입니다. 그렇다면 사단과 칠정을 서로 짝이 되는 것으로 들먹이면서, 순전히 리라거나 기를 겸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말해서야 되겠습니까. 인심(人心)과 도심(道心)<sup>4)</sup>을 논한다면 혹 그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단과 칠정을 논하면서는 이렇게 말할 수 없을 듯합니다. 칠정을 오직 인심으로만 보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蓋性之乍發，氣不用事，本然之善，得以直遂者，正孟子所謂四端者也。此固純是天理所發，然非能出於七情之外也。乃七情中，發而中節者之苗脉也。然則以四端七情，對舉互言，而謂之純理兼氣，可乎？論人心道心，則或可如此說；若四端七情，則恐不得如此說。蓋七情不可專以人心觀也。

리는 기를 주재(主宰)하는 것이고, 기는 리의 재료입니다. 둘은 본래 구분되긴 합니다만, 구체적인 일과 사물에서는 처음부터 뒤섞여서 나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리는 약하고 기는 강하며, 리는 흔적이 없고 기는 자취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러나고 흘러 돌아다니는 때에 지나치거나 못 미치는 식의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칠정이 드러

4) 마음은 온 몸을 주재하는 것으로서 온갖 일에 대응하는 주체인데, 일에 대응하면서 자기 몸의 욕구에서 나오는 것이 인심이고,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도심이다. 『서경』 「대우모」 편에 “人心惟危，道心惟微。惟精惟一，允執厥中。”이라는 말이 나오고 『순자』 「해폐」 편에 “故道經曰，‘人心之危，道心之微’”이라는 말이 나온다.

나면서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며, 본성이 가진 것이 다 실현되지 못하기도 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한 것은 바로 천명(天命)의 본연이고, 악한 것은 바로 기품(氣稟)의 지나치거나 못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과 칠정이란 것은 애초에 두 가지 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배우는 이들은 맹자가 선한 한 쪽만을 추려내어 가리킨 뜻을 고려하지 않고 으레 사단과 칠정을 따로 얘기하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夫理，氣之主宰也；氣，理之材料也。二者，固有分矣。而其在事物也，則固混淪而不可分開。但理弱氣強，理無朕而氣有跡，故其流行發見之際，不能無過不及之差。此所以七情之發，或善或惡，而性之本體，或有所不能全也。然其善者，乃天命之本然；惡者，乃氣稟之過不及也，則所謂四端七情者，初非有二義也。近來學者，不察孟子就善一邊剔出指示之意。例以四端七情，別而論之，愚竊病焉。

주자(朱子)는 말했습니다. “기쁨과 성냄과 슬픔과 즐거움은 감정이고, 그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은 본성이다.” 또 주자는 본성과 감정에 대해 논할 때마다 늘 네 가지 덕(四德)과 네 가지 실마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서 기를 본성으로 여길까 싶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배우는 이들이 리는 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기가 지나치거나 못 미침 없이 저절로 드러나는 것은 곧 리의 본모습이 그런 것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이해해서 실천한다면, 잘못이 없을 것입니다. 1559년(명종14년) 3월.

朱子曰，“喜怒哀樂情也，其未發則性也”。及論性情之際，則每每以四德四端言之。蓋恐人之不曉而以氣言性也。然學者須知理之不外於氣，而氣之無過不及自然發見者，乃理之本體然也。而用其力焉，則庶乎其不差矣。己未，三月。